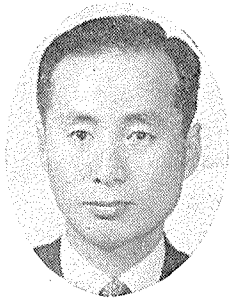


大然閣「호텔」火災의 教訓

原因=建築·消防法規定을 殆半無視
빨리 消防施設만이라도 갖췄으면=對策

李 鍾 秀 (中央日報 科學部長)



「호텔」화재 사건은 세계 第一位라는 달갑지 않은 영광만은 누리지 않아도 좋게 됐다.

大然閣「호텔」화재 사건은 인간의 잘못이 겹치고 겹친 인재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大然閣「호텔」을 지은 사람은 무슨 배짱에서인지 서울시 당국이나 건설부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나머지 중간 중간의 준공검사 같은 것은 아예 받지를 않았다. 건축허가를 받기 6개월전에 착공했고 모든 것은 완공 검사한 뒤 화재가 나서 밝혀진 바로는 20층과 21층은 무허가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완공하기에 앞서 두차례에 걸쳐 소방 시설 미비가 지적 됐지만 전혀 무시 했다고 한다.

설계자가 설계도에 屋外 非常階段을 넣어 놨지만 건설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 없애 버렸다.

大然閣「호텔」화재 원인은 식당의 「프로판 가스」통에서 새「가스」가 바닥에 깔린 것에 불이 붙은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프로판가스통」의 「가스」는 고무 호스에서 새어난 것이라고 한다. 1m에 30원 밖에 안 나가는 싸구려 고무 호스를 썼을 뿐 아니라 마구 밟고 다닐 수 있게 땅에 늘어 트려져 있었다고 하니 구멍이 나서 「가스」가 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화재 사건은 최초의 5분간」이 고비라고 한다. 첫 5분 동안이라면 쉽게 끌 수가 있지만 5분을 넘기면 큰 불로 번지게 되기 때문이다.

소방법에도 소화전에 쓸 수 있는 수도

의 양을 20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5분이면 큰 불로 번질 까닭이 없다. 大然閣「호텔」화재의 경우는 담배 불이나 漏電과 같이 첫 5분만에 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20kg 짜리 「가스」통에서 새「가스」가 1m 정도나 쌓인 것에 불이 붙어 종업원 4명이 즉사하다 싶이 했으니 까 예외적인 화재라고 볼 수 있진 하다.

그럴 수록 화재 탐지 장치가 작용해서 화재 경보기라도 울렸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 마저 모조리 기능을 잃고 있었다는 것이 뒤에 밝혀 졌다. 외국 같으면 불을 다루는 식당이니까 천장에 「스프링 클러」장치를 마련했을 것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서 천장의 물 탱크를 막은 「파라핀」이 그 열에 녹아 「스프링 클러」의 물이 확 쏟아지는 결과로 불이 꺼졌을 것이었다. 그러나 「가스」통의 「호스」값도 줄이는 사람이 값 비싼 「스프링 클러」장치를 놔둘리가 있겠는가. 아니 「스프링 클러」장치는 사치스러운 일이라 해도 消防栓은 왜 못 썼으며 化學消火器는 왜 준비를 안했나. 소화 「펌프」나 소화기만 잘 쓸 줄 알아도 웬만한 화재는 끌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大然閣「호텔」말고도 대개의 고층건물에 있는 화재경보장치나 소화기는 기능이 발휘 않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화전도 박스에 넣어서 자물쇠를 잠구기 일쑤라 급할 때 쓸 수가 없다고 한다.

고층 건물에선 수평·수직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설계 건설돼 있어야 한다고 한다. 식당만 태우고 진화 되든지 3·1빌딩의 26층 화재 사건 모양 한층에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100층이 넘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20층이상에서 불이 나드라도 그것을 끌 사다리 차는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불이 난 방이나 불이 일어난 층에서 진화가 되어 하는 것이다.

그런 빌딩이 大然閣「호텔」같이 타게 된다면 몇 천명이 매 죽음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다. 실제로 뒤에 조사단이 살펴 본바 천장이나 벽에 耐火材를 쓰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불이 얼마든지 새어 나갈 수 있도록 천장과 벽틈이 벌어

火災는 人災라는 말이 있다. 사실 火災 원인의 대부분은 부주의 인색 건축법 무시 등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아침에 160여명의 귀중한 목숨과 약 20억원의 재산을 불살아버린 大然閣「호텔」화재 사건은 4층 5층으로 사람의 잘못이 겹친 인재의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다.

천리 제방이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지만 반대로 大然閣「호텔」화재 사건은 사람의 잘못이 이다지도 겹쳐서야 그런 큰 사고로 아니 번질리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대 화재로 번질 좋은 조건을 모조리 갖추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호텔」사상 최고의 기록을 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大然閣「호텔」화재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1948년 미국 「애틀랜터」시의 「호텔」에서의 화재로 119명이 소사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일반 화재사건으로 1965년 5월 「벨기에」의 수도 「부르셀」의 백화점에서 323명이 타죽은 일이 있으므로 大然閣「호

져 있었다고 한 조사 위원은 말 하고 있다.

「에어컨디션」장치는 실내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인데 화재가 날 때 층마다 닫히도록 하지 않으면 거기를 통해 불꽃이 번지게 마련이다. 大然閣「호텔」은 그 점에도 결함이 있어서 아래층 불이 10수층으로 번지는 등 삼시간에 전 건물로 번졌기 때문에 燒死者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끝내 별세 했지만 余공사의 건투가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준바 있다. 그런데 뒤에 조사 해보니 余공사가 들어 있던 그 방 천장은 내화제로 돼 있더라는 것이다. 추측이긴 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을 때에 모범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만든 방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고층건물에 화재가 나면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기가 치 솟을 뿐 아니라 불길에 부채질을 한다. 그래서 외국선 고층건물이면 의례히 연기가 안통하도록 돼 있어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스모크 타워」시설이 있게 마련인데 대연각엔 그것이 없어 더욱 많은 인명의 손해를 보게 했다.

외국에서 호텔마위에 설치하고 있는 최신 방화 시설은 고사 하교라도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규정된 것만 충실히 지켰더라면 大然閣「호텔」은 그렇게도 무참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 든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건축가들이 지적하는 바대로 적자면 大然閣「호텔」이 갖춰야 할 조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밖에도 종업원의 훈련이 모자랐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案内圖같은 것도 없었고 건평이 萬여평이나 되는 1급 관광「호텔」에 「헬리포트」도 안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어 18층은 철문이 닫혀져 있어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곳서 어쨌든 죽음을 당한 사람도 허다 했다고 한다.

大然閣「호텔」화재사건을 결코 對岸의 화재로 보면 안된다. 우리 나라엔 현재 11층이상 건물이 104동이 있는데 그중 98동이 서울에 몰여 있다. 그중에서 「우리 밀」은 불이 나도 문제 없다」고 할 곳이 과

연 뗏이나 될 것인가.

외국 사람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온갖 신경을 쓰는데 우리 나라 사람은 만일의 경우에도 자기만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평당 만원씩하는 「스프링 클러」나 비상계단은 고사하고 싸구려 「호스」나 탈때 위독「게스」를 내 뿜는 화학 벽지같은 것을 쓰는 것은 그런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외국선 건전한 만화나 국민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화재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불은 무섭지만 그 성질만 알고 다루면 순하게 걸 수 있다는 것을 어려서 부터 버리속 깊이 새겨 두자는 뜻에서 일 것이다.

그리고 외국엔 화재 연구소가 있어서 그 나라의 기후 풍토에서 일어 나는 화재에 대해 철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재교육이나 화재연구는 뒤에 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긴 하다고 수긍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소방 시설이란 것이 형편 없어 大然閣「호텔」화재 사건에 특히 무력함을 드러낸 것을 생각할 때 빨리 소방서의 소방시설이나 제대로 갖추라라고 진의하고 싶은 생각이 앞서니 말이다.



◆建築法과 消防法을 허술히 하여 全燒된 大然閣「호텔」은 160여명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고 殘骸만 엉성히 남아있다◆